

중국 근대 매체와 翻譯*

— 《時務報》의 朝鮮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

文丁珍**

<목 차>

1. 上海와 《時務報》
2. 強國을 향한 욕망, 그리고 翻譯
3. 통하고 싶은 世界, 배제되는 朝鮮
4. 朝鮮 지식의 재구성

1. 上海와 《時務報》

오늘날 세계는 영토 확장이나 이념 수호를 위한 전쟁 대신 첨단기술과 정보를 둘러싼 경쟁의 시대로 특징지어진다. 최고의 기술정보를 확보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이다. 창조적 파괴는 기술혁신에 기반 한다는 생각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이론으로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초 이미 세계는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뉴스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였다.

최초의 중국 근대 신문으로 간주되는 《循環日報》를 창간하기도 한 王韜는 上海 租界를 통해 두 가지 문화적 충격에 휩싸인다. 그 하나는 租界가 보여주는 근대적 설비들이다. 도로가 형성되고 海運과 電信 접속이 가능해진 上海의 租

* 이 논문은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중국 근대 지식의 형성과 매체'(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인하대학교 주최,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5남 500호, 2010. 5. 29)에서 발표된 논문, <중국 근대 매체와 조선이라는 지식>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강사

界地에서는 온갖 정보, 상품, 화폐와 그리고 사람이 세계와 함께 유통되고 있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온갖 상품(기본적인 식품에서 이국적인 사치품에 이르기까지)으로 인해 증가하던 서양 물품 잡화점(洋行)은 공간관계서의 변화가 일상에까지 미치게 되었음을 알려준 가시적인 증거이다. 또한 다양한 언어로 발간되던 각국의 매체는 각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괴상한 이야기까지 온갖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조계의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각국의 사건들은 그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¹⁾ 이는 王韜가 겪은 또 다른 다른 문화적 충격, 인쇄술의 발전과 관계된 것이다. 王韜는 1850년 자신이 일하던 墨海書館에서 들여온 서양의 활판인쇄기가 불과 18개월 만에 11만 5,000권의 《新約聖書》를 찍어내는 것을 보고 그 뛰어난 성능에 크게 놀란다.²⁾ 그리고 20세기 초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중국 근대 매체는 그 수적인 확산을 경험하게 된다.

지역	1840년~1860년		1861년~1894년	
홍콩	24(외국어)	4(중국어)	14(외국어)	6(중국어)
上海	4(외국어)	1(중국어)	37(외국어)	39(중국어)

표 1 <1894년 이전 홍콩과 上海 신문 간행물 수>

중국 근대 매체에서 주목할 것은 증폭된 시각화의 특권과 수량화의 경향³⁾

- 1) 중국 근대 언론의 개척기로 분류되는 1858년부터 1894년 淸日戰爭의 발발까지 36년간의 중국의 언론 가운데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근대적 신문을 창간하기 시작한 것은 1873년 《昭文新報》와 《循環日報》부터이다. 1860년대 이전에는 포르투갈어와 영어신문이 주를 이루었다, 1870년대에는 上海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신문이, 1890년대에는 일본어신문이 발행된다. 또한 18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영국의 조계지 홍콩, 포르투갈의 조계지 마카오, 남부 연안의 개항장들인 廣州, 上海, 福州에서만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었으며, 天津을 기점으로 중국 북부에 신문과 잡지가 발행된 것은 1880년대이다.
- 2) 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 1815-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118쪽.
- 3) 인쇄술이 근대 유럽에 미친 영향력은 《근대 유럽의 인쇄 미디어의 혁명》(Elizabeth L. Eisenstein, 전영표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을, 유럽의 패권을 가져 온 세계관으로 시각화와 수량화를 분석한 자료로는 《수량화 혁명》(엘프리트 W. 크로스비, 김병화 옮김, 심산, 2005)을, 이와 관련된 중국 매체의 구체적인 특성은 <중국 근대 상하이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文丁珍, 《中國現代文學》 第56期, 2011, 185-190쪽)을 참고할

이다.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수치로 표상된 세계에 대한 정보는 기존의 사고방식 혹은 질서로 해명되지 않는 틈을 만들기 시작한다. “연안 도시 學인들이 점차 《萬國公報》를 읽게 되고, 上海에서는 서양서적들이 번역되었는데, 이러한 《萬國公報》와 서양서적들 그리고 또한 서양인 교육자들의 영향을 통하여, 중국의 실용적 지식이 서양의 그것과 대적될 수 없음을 인식⁴⁾하게 된 것이다. 세계 전체로 넓혀진 지리적 상상력과 타자성의 세계에 적응하고 그것을 감식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중국 근대 매체에 남겨진 당면 과제였다. “국력의 신장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 연구의 촉진”이 무엇보다 시급해졌으며, 매체에는 “많은 뉴스들이 게재” 되기 시작했다.⁵⁾ 그러나 편집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중의 많은 중요한 자료들”이 “부주의로 인해 보도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기란 어려웠다. 租界에 위치해 있던 덕분에 사옥과 시설 그리고 운영비까지 보존할 수 있던 《強學報》는 1896년 《時務報》로 다시 탄생한다. 《時務報》는 증가하는 정보들의 편집 여건 및 주어진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일간지가 아닌 신문과 잡지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제 세계의 다양한 지식들이 그림과 계량화된 숫자 그리고 일목요연한 도표의 형식과 함께 《時務報》 안에 담기게 된다.⁶⁾

旬刊으로 발행된 《時務報》는 크게 論說, 論摺, 京外近事, 域外報譯 등의 난으로 나눌 수 있다. 논설은 매 호마다 게재되었는데, 총 第69期까지 출간된 《時務報》에는 ‘論說’에 112편, ‘時務報館文編’에 21편 이렇게 총 133편의 논설이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變法通議>, <論中國積弱由於防弊>, <論君政民政相嬗之理>의 정론을 포함한 60편이 梁啓超의 것이다. “變亦變, 不變亦變”이라는 전제 하에 梁啓超의 <變法通義>은 “변법의 근본을 인재의 양성”으로

수 있다.

- 4) 張之洞, 《勸學篇》 外篇·益智第一 (<http://www.douban.com/group/topic/3636335/>).
- 5) 《強學報》 제1호, 1896. 1.12(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 1815-1945》, 109쪽 재인용)
- 6) 《時務報》에 소개된 章程 속 삽화, 무역 및 인구 관련 통계, 지도, 부록으로 첨부된 도표 형식의 中西文合璧表, 書目表, 학교 관련 규정들에 매겨진 일련 번호 등은 그 예이다. 梁啓超의 일본 망명 이후 일본인 스즈키 츠루타로(鈴木鶴太郎)로가 운영하던 인쇄소에서 인쇄가 시작된 《清議報》는 편집 분야에 있어서 대담한 혁신을 시도하며, 간행물의 두드러진 위치에 상세한 도서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한다.

과약하고 “인재의 흥성, 학교 건립, 과거 제도 폐지”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쉽고 명확한” 그의 의론들은 《時務報》의 명성을 전국으로 퍼지게 한다.

‘諭摺’에는 청나라 황제의 上諭와 신료들이 황제에게 올린 각종 상주문이 실려 있다. ‘京外近事’란은 청나라 수도 北京과 그 밖의 여러 지역 뉴스를 한데 묶어 실었는데, 《時務報》 전체 지면의 약 3분의 1정도를 차지했다. 《時務報》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域外報譯’란은 주로 외국의 신문 잡지나 또는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서양어로 발행한 신문 잡지에 실린 기사들을 번역한 것이다. 간단한 외국의 최근 정보뿐만 아니라 논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 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여기에 실려 있다. ‘域外報譯’은 다시 크게 日文報, 英文報, 法文報, 俄文報로 나뉘어 각국 매체의 소식들 전했다.

“마치 광천수를 마시듯” 《時務報》를 “담독하던” 독자들 덕분에 《時務報》속 논설은 공공의 담론으로 확산되며,⁷⁾ 변법을 주장하는 지식 계층의 주장을 대변해준다. 물론 《時務報》독자가 지식인에만 그치지 않는 듯하다. “정치, 외교, 학술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는” 《時務報》를 통해 “시골의 농부들도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으며, “관리”와 “유생”들을 비롯한 “뜻있는 세상 남자들의 학문에 일조”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새로 南京總督이 된 劉坤一의 《時務報》구독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은 다른 지역의 총독과 巡撫의 지지와 발행경비 보조로까지 이어지게 되며, 《時務報》는 “일시에 전국에 퍼졌고, 수개월 이내 그 발행 부수가 만 여부에 달하게 되었다.”⁹⁾ 관료 계층의 지지는 淸 조정의 호감을 불러왔고, 《時務報》는 중국 전역으로 배포되게 되었다. 그러나 《時務報》의 창간 때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었던 南京總督 張之洞(1896년 湖廣總督이 됨)은 康有爲가 전개한 今文學運動을 《時務報》가 주장하는 등 급진적인 주장을 펴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時務報》의 논조에 간섭을 시작한다. 이에 대한 불만과 함께 汪康年과의 불화로 인해 1897년

7) 潘光哲(2005), <《時務報》和它的讀者>, 《歷史研究》 第5期, 71쪽 참조.

8) 張之洞, 《勸學篇》 外篇·閱報第六.

9) 梁啓超, <本館一百冊祝辭并論報館之責任及本館之經歷>, 《清議報》 第100冊.

말 梁啓超는 주필 직을 사임하게 된다. 마침 第48期에 이르러 《時務報》가 독자들에게 환영을 받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깨끗했던 종지와 인쇄에 문제가 발생하고, 독자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다.¹⁰⁾ “전에 비해 배 이상으로 오른 상해 종이 값의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석판 인쇄 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신문사는 결국 《時務報》 第57冊 이후 활판 인쇄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른다.¹¹⁾ 근대 매체가 갖는 혁신적인 중요성과 함께 그 안에 숨겨진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게 만드는 지점들이다.

2. 強國을 향한 욕망, 그리고 翻譯

1895년 馬關條約의 체결 이후 중화민족의 각성은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역사에 의해 정치 무대의 중심으로 서게 된 維新派는 사회 변혁의 주체 역량을 담당하며 維新變法運動을 일으켰다. 학당을 세우고, 학회를 조직하며, 신문을 창간한 것은 이러한 운동의 세 가지 주요 고리이다.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던 매체가 바로 《時務報》이다.¹²⁾

《時務報》의 創刊者 겸 主筆이었던 梁啓超와 汪康年 모두가 중시한 것은 외국 신문 기사의 번역이었다. 번역은 “동서양 각 언어의 신문을 널리 번역하지 않으면, 타인과 나의 통신이 불가능”¹³⁾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된다. 소통 수단으로서의 번역은 “세상의 최근 일들을 널리 번역” 함으로써 “전 세계의 형세와 그 흥망성쇠의 이유를 알”고, “각국의 일반적인 상황과 強弱, 그리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마치 자기 자신들만이 가장 힘이 세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오랑캐로 착각하면서 하늘과 땅이 얼마나 넓은 지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10) <本館告白>, 《時務報》 第48冊.

11) <本館告白>, 《時務報》 第64冊.

12) 劉蘭肖, 《晚清報刊與近代史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135쪽.

13) 閻小派, 《中國早期現代化中的傳播媒介》, 上海三聯書店, 2010, 152쪽.

상태에서 벗어나게”¹⁴⁾ 하기 위함이었다. “넓은 토지와 많은 인구로는 천하에서 으뜸”인 중국이 실상은 그 뿌리 깊은 病因들이 내재된 “환자(病人)”¹⁵⁾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淸日戰爭 이후 전 세계는 그 허상을 이미 알”¹⁶⁾고 있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달콤한 잠 속에 빠져 있었다. 비록 간간히 뒤척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꼭 깨어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유신”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압력이 없었다면 발분하여 스스로 진작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¹⁷⁾ 물론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노동력”, “앞으로의 地運” 등을 근거로 “중국은 장차 강성해질 것”¹⁸⁾이라는 견해가 《時務報》를 통해 제시되지만, 淸日戰爭 이후에도 중국은 자신들의 위기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¹⁹⁾다는 인식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 또한 《時務報》는 번역을 통해 외국의 對중국 정책을 파악하는 동시에 서양의 문명의 유입을 시도했다. 기존의 매체에서 중시 받지 못하던 서양의 정치(西政), 학설, 외교이론, 최신 과학 기술에 대한 번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제국 열강들의 침탈을 당한 국가들에 대한 기사가 번역되었다. 조선 관련 기사 또한 적지 않다. 이들 상이한 듯해 보이는 번역 기사들은 ‘西文報譯’과 ‘東文報譯’이라는 큰 틀 안에 뒤섞인 채 나열되어 있다.

한편 《時務報》에서 제시하는 번역에 대한 원칙 및 방법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이다. 첫째, “마땅히 번역되어야 할 원본에 대한 선택”, 다시 말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더 이상 번역하지 않아도” 될 “군사 서적”이 기존 번역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14) “廣譯五洲近事，則閱者知全地大局，與其強盛弱亡之故，而不至夜郎自大，坐習井以議天地矣。” <論報館有益於國事>，《時務報》第1冊。

15) “地廣戶繁，甲于天下”，<天下四病人>，《時務報》第14冊(上海字林西報 1896. 11. 30)。

16) “然病根之深，自中日交戰後，地球各國始悉其虛實”，<中國實情>，《時務報》第10冊(上海字林西報 1896. 10. 17)。

17) “中國正在酣睡之際，雖間或反側，必不遽醒。以維新而論，中國若無外人相逼，欲其發憤，振作自新，決無此事。” <論中國將來實情>，《時務報》第6冊(倫敦東方報 1896. 8. 10)。

18) <論中國之將強>，《時務報》第31冊。

19) “然中人怡然不悟”，<論中國現情>，《時務報》第36冊，(東京日日報 1897. 07. 11)。

근본적인 원인도 서양인들의 “강함을 배우고자 했으나, 그들이 강해진 이유를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니, 그 시작이 잘못되어 뒤 따르는 모든 것까지 잘못되어 버린”²⁰⁾ 결정적인 예인 것이다. 둘째, “공역의 규칙을 정하는 것”, 즉 번역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했다. 번역에 쓰이는 각종 용어들, 인명, 지명, 관제, 사물의 명칭, 도량형, 그리고 紀年の 통일²¹⁾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중국어에 따라 번역하다 외국어의 의미를 놓치는 경우”와 “외국어를 따르다 중국어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두 가지 경우 모두 바람직한 번역은 아니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깊이 알고 그 뜻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이는 “역자와 저자의 학문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번역자는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또한 높은 학문적 소양까지 갖추고 있어야 했다. 결국 셋째, “중국어와 서양어 및 그가 번역하고자 하는 서적 속에 언급된 전문 학문, 이 세 가지 모두를 이해”하는 “번역 인재의 양성”이 시급해진다. 번역이 단순한 언어와 언어 간의 교환이 아님을 인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식과 정보로 작동할 번역서적의 의미까지도 제대로 파악해낼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는 전문 번역 학교의 설립 주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서양어문을 익혀 서양의 유용한 서적을 번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4백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양의 새로운 학문과 서적”을 “지금과 같은 속도로 번역하려면 백년은 족히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찍이 서양의 변법을 받아들인” “일본의 변법의 속도는 서양에 비해 두 배가 단축”되어 있었다. 결국 “일본의 번역서를 바탕으로 서양 학문을 흡수한다면 변법에 20년이 걸린 일본에 비해” 중국은 “10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방책을 찾는다.²²⁾

20) “故今日而言譯書，當首立三義，一曰，擇當譯之本，二曰，定公譯之例，三曰，養能譯之才，……此爲宗旨刺謬之第一事，起點既誤，則諸線隨之。” <論譯書>，〈時務報〉第27冊。

21) “一曰，人名，地名……二曰，官制，……三曰，名物，……四曰，律度量衡，……五曰，紀年”，<論譯書>，〈時務報〉第29冊。

22) <讀日本書目志書後>，〈時務報〉第45冊。

《時務報》속 번역은 “분명 당시 중국이 처한 세계 속에서 강국 제일의 뜻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중의 근본”²³⁾이었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로서의 서적 번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의미(意)”의 전달이었으며, 번역자는 반드시 그 “뜻을 최상으로 삼아야” 했다. 그리고 이제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라면, “분별과 표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된다.²⁴⁾ 확대된 공간인식은 매체 속 번역 기사와 논설들의 수량화와 시각화를 통해 세계라는 지식 속에 투입되며, 세계는 《時務報》속 “域外報譯”이라는欄의 지면 속에 “동시성”으로 드러나게 된다.²⁵⁾ 그리고 그 사이에 조선이 있다.

3. 통하고 싶은 世界, 배제되는 朝鮮

《時務報》가 매체로서 가장 중요시한 점은 바로 ‘소통’이었다. “신문을 많이 볼수록” 그 사람은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며, “報館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²⁶⁾

국가의 강약은 그 국가 내의 상호 소통과 폐색 정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는 마치 한 개인의 동맥이 막히면 그 사람이 병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23) “故譯書實本原之本原也……苟其處今日之天下，則必以譯書爲強國第一義，昭昭然也。” <論譯書>，《時務報》第29冊。

24) “言譯者，當以此義爲最上……凡譯書者，將使人深知其意。”，“凡義法奧蹟，條理繁密之書，必就其本文分別標識。” <論譯書>，《時務報》第29冊。

25) “이처럼 이질적인 사건들을 동시성의 시간 안에 통합하고, 그것에 현재성의 형식을 부여하는 것은, 질적인 고유성의 형식으로 시간을 정의하던 근대 이전의 시간성과 달리, 하나의 시점에 이질적인 요소들을 대응시키는 양적 시간의 출발점을 이룬다. 즉 이전의 시간이 사건에 종속되어 있다면, 동시성의 형식으로 사건들은 그 시간이란 척도아래 종속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성의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시간은 이제 그 현재라는 동시적 시점들의 선형적 연속체가 되게 된다.” 이진경, 《역사의 공간—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시간적 사유》, 휴머니스트, 2010, 205쪽.

26) “閱報愈多者，其人愈智。報館愈多者，其國愈強國。曰，惟通之故。” <論報館有益於國事>，《時務報》第1冊。

가지 이다. 만약 문화가 전파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우둔한 시골뜨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로가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秦나라와 越나라는 서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무관심했다. 민(閩, 즉 福建省)과 월(粵, 즉 廣東省)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과거의 중원 왕조들을 외국으로 생각했다. 이런 현상은 오늘 날도 마찬가지이다. 조정과 백성들 간에 상호 접촉이 없기 때문에 황제의 恩典이 전 帝國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들은 서로를 속이며 부패가 야기되고 있다. 중국과 외국의 상호 접촉이 없어 상호 알 방법이 없으며, 전통에만 얽매어 있는 유학자들은 무의미한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수십 년간 모욕을 당해오고 있다.²⁷⁾

물론 “막힘을 제거하고 소통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닐 터”이지만, 그 첫 번째 방책으로 報館을 선택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이웃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웃의 일을 내가 모르고 심지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귀와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조정에서는 공중의 이익을 위한 계획과 사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며, 백성들은 고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한다. 이는 후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목과 후설의 작용을 도와 천하의 폐단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보관의 임무이다.²⁸⁾

각국의 신문과 각국의 정치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어제는 신문사의 주 필이었다가 오늘은 집정자가 되기도 하는” 현실로 인해 신문이 “정부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세계인들이 《타임지》의 의론을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그 문장이 탈고되자마자 전신을 통해 세계로 질주”했던 이유는 바로

27) “視國之強弱，則於其通塞而已。血脈不通則病，學術不通則陋，道路不通，故秦越之視肥瘠，漠不相關。言語不通，故閩粵之與中原，邈若異域。惟國亦然。上下不通，故無宣德達情之效，而舞文之吏，因緣爲奸，內外不通，故無知己知彼之能，而守舊之儒乃鼓其舌。中國受侮數十年，坐此焉耳。” <論報館有益於國事>，《時務報》第1冊。

28) “去塞求通，厥道非一，而報館其導端也。無耳目，無喉舌，是曰廢疾。今夫萬國並立，猶比鄰也。齊州以內，猶同室也。比鄰之事，而吾不知，甚乃同室所爲，不相聞問，則有耳目而無耳目。上有所措置，不能喻之民，下有所苦患，不能告之君，則有喉舌而無喉舌。其有助耳目，喉舌之用，而起天下之廢疾者，則報館之爲也。” <論報館有益於國事>，《時務報》第1冊。

세계 매체 속 정보와의 만남이 세계 정치와의 소통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양에는 각각의 학문마다 신문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여, “어느 학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면, 그 신문에 새로운 뉴스가 추가”되곤 한다. 게다가 “복잡한 것은 그림으로 증명하고, 심오한 것은 표로 정리하여, 아침에 신문에 등재된 것이 저녁이면 온 세계에 전해질” 정도로 명료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소식을 보급한다. 그래서 “국가는 신문사를 보호”하고 “士民들은 신문을 즐겨 본다.”²⁹⁾ 물론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당장 서양의 신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³⁰⁾ 했다. 《時務報》에서는 구체적으로 담아내어야 할 신문의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전 세계의 소식들에 대한 광범위한 번역이다. 독자들은 세계의 형세와 그 흥망성쇠의 이유를 알게 되어 교만하거나 우쭐대느라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각 성의 新政을 상세히 기록한다. 독자들은 新法의 실질적 이익과 개혁 과정을 맡은 이들의 어려움과 그 목적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방해가 줄어들 것이다. 셋째, 교섭의 중요한 案을 많이 수집한다. 독자들은 갖춰지지 않은 國體로 인한 굴욕과 국제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모욕을 절감할 것이고, 신지식의 학습에 대한 분투와 설욕의 각오를 다지게 될 것이다. 넷째, 정치, 학문, 기예 관련 주요 서적을 소개한다. 독자들은 모든 실용적 지식의 출처와 응용방법을 알게 됨에 따라 점차 과거의 학문 속에서 잘난 척만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행해진다면 머지않아 점차 사회 기풍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쇠해서 사라진 많은 일들이 흥할 것이며, 국체가 바로 서고 인재가 나와 10년 이후에는 보관의 규모 또한 제대로 갖추어질 것이다.³¹⁾

29) “有一學卽有一報, 其某學得一新義, 卽某報多一新聞, 體繁者證以圖, 事蹟者列爲表, 朝登一紙, 夕布萬邦. ……國家之保護報館……士民之嗜閱報章”, <論報館有益於國事>, 《時務報》第1冊.

30) “今設報於中國, 而欲復西人之大觀, 其勢則不能也.” <論報館有益於國事>, 《時務報》第1冊.

31) “然則報之例當如何? 曰: 廣譯五洲近事, 則閱者知全地大局, 與其強盛弱亡之故, 而不至夜郎自大, 坐習井以議天地矣. 詳錄各省新政, 則閱者知新法之實有利益, 及任事人之艱難經畫, 與其宗旨所在, 而阻撓者或希矣; 博搜交涉要案, 則閱者知國體不立, 受人□辱, 律法不講, 爲人愚弄, 可以奮厲新學, 思洗前恥矣. 旁載政治, 學藝要書, 則閱者知一切實學源流門徑, 與其日新月異之跡, 而不至抱八股八韻考據詞章之學, 枵然而自大矣. 准此行之, 待以歲月, 風氣漸開, 百廢漸舉, 國體漸立, 人才漸出, 十年以後, 而報館之規模, 亦可漸備矣.” <論報館有益於國事>, 《時務報》第1冊.

이상의 내용은 《時務報》의 전체 체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역외보란’에 산재되어 있는 번역된 조선 관련 지식들과도 연결된다. 《時務報》 내 조선 관련 번역 기사는 총 60여 편으로 파악된다. 이를 《時務報》에서 제시된, 신문이 담아야 할 내용의 세부 항목³²⁾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면 다음과 같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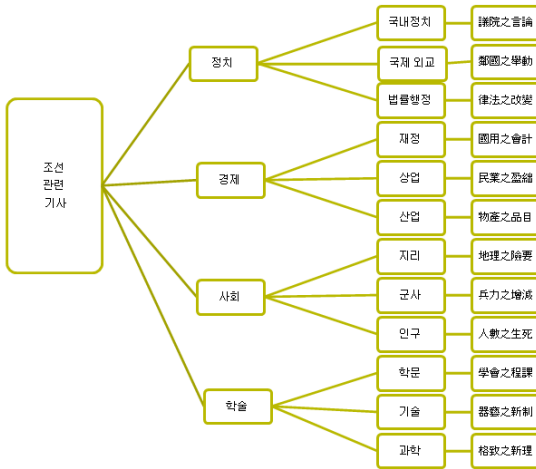


그림 1 《時務報》 내 조선 관련 기사의 내용 분류

조선 관련 기사의 상당 부분은 정치·경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 분야의 외교 관련 서술을 조선과 함께 거론된 국가별로 다시 나누어 보면, 러시아가 37편, 일본이 11편, 영국이 3편, 미국이 2편이다. 조선 관련 외교 논의의 초점이 주로 러시아에 맞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西人之大報也，議院之言論紀焉，國用之會計紀焉，人數之生死紀焉，地理之險要紀焉，民業之盈絀紀焉，學會之程課紀焉，物產之品目紀焉，鄰國之舉動紀焉，兵力之增減紀焉，律法之改變紀焉，格致之新理紀焉，器藝之新制紀焉。” <論報館有益於國事>，《時務報》第1冊。

33) 구체적인 《時務報》 속 관련 기사는 부록으로 제시된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대분류	소분류	수량	합계	백분율
정치	국내정치	7	49	73%
	국제외교	37		
	법률행정	5		
경제	재정	5	12	18%
	상업	5		
	산업	2		
사회	지리	2	5	7.5%
	군사	3		
	인구	0		
학술	학문	0	1	1.5%
	기술	0		
	과학	1		

그림 2 《時務報》 내 조선 관련 기사 내용 분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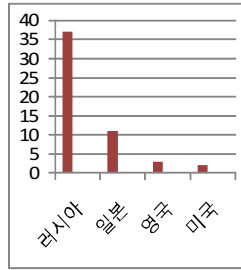


그림 3 『時務報』 내 조선 관련 기사 중 외교 관련 기사의 국가별 분포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러시아의 외교 정책이 조선과 관련된 논설의 최대 관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俄文報에서 직접 선택된 조선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조선 문제를 다룬 기사 역시 東文報에서 轉載된 것이다.³⁴⁾ 또한 조선 관련 기사 중 조선에서 간행된 잡지 가운데에서 선별하여 번역된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³⁵⁾ 이 잡지가 서양인의 시각으로 서술된 매체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⁶⁾ 이는 조선 관련 기사에서 조선인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기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조선 지식의 상당 부분은 영국과 일본, 두 제국의 시선으로 번역된다.³⁷⁾

34) 러시아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對조선 정책을 서술하고 있는 기사로는 <俄報論日俄關係> (《時務報》 第41冊)가 있는데, 이것은 《大阪朝日報》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35) 《時務報》 第32冊의 <記高麗變法事>, <西儒非立潑及哀生論高麗稅務>, <美築高路>은 朝鮮西字月報, 《時務報》 第38冊의 <日人論俄日高情形>은 高麗西字月報를, 第53冊의 <高麗商務總論>은 <TRADE AND COMMERCE OF KOREA>(《The Korean Repository》, D ECEMBER, 1897)(유영렬·윤정란의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景仁文化社, 2004)에 수록된 총 목차 참고)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36) 조선에서 발간된 영문 月報로서 시기가 겹쳐지는 잡지는 《The Korean Repository》가 있다. 현재 원본은 극히 일부만이 남아 있고, 총 발행된 58권 중 57권이 영인본으로 엮여 있다. 1892년 올링거(Ohlinger, F.)에 의해 창간되어 1898년 12월호로 종간된다. 한국에서 영문으로 간행된 최초의 잡지로서, 한국 이외에 일본과 중국 등에 발송되었다. 《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景仁文化社, 2004, 2-7쪽 참고.

4. 朝鮮 지식의 재구성

문을 숭상하는 禮의 나라 조선³⁸⁾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중반 이후 “막힘(塞)”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외국과의 통상을 꺼리는, 그래서 더욱 희망이 없는 조선으로 바뀌어 간다.

1. 조선은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고 특산물이 없으며 풍부하지도 않다. 심산유곡에 삼이 조금 있을 뿐……그 나라에 들어가면 활기가 없고, 먹는 것도 담백하고 군비는 낡고 형편없으며, 화약을 쓰는 장치는 매우 느리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아마도 이만큼 빈약한 국가는 없을 것이다.³⁹⁾
2. 예부터 부강한 나라는 耕織 이외에 鹽鐵로 이익을 얻었다. 지금 고려는 文士를 중시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강구하지 않으니, 어찌 날로 빈약해지지 않겠는가?⁴⁰⁾

조선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말 조선 관련 기행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제, 재생산되고 있었다.⁴¹⁾ 여행객 혹은 관찰자로서의 시선은 조선을 타자로 만들며, 그 과정에서 중국인의 조선 인식에는 “중화주의적 욕망” 혹은 “중첩된 오리엔탈리즘”이 내재되기도 한다.⁴²⁾

37) 日文報와 西文報를 출처로 한 조선 관련 기사는 《時務報》에서 분류한 언어상 분류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日文報의 기사를 일본의 시각으로, 西文報의 기사를 서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각각의 매체 속에는 상호 간 기사의 원전을 바탕으로 필요 한 정보를 선택한 후 다시 자신들의 의견을 더한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38) 박원호 외,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 연구 재단, 2005, 22쪽.

39) <高麗風景>, 《申報》, 1876. 3. 1.

40) <論高麗情形>, 《申報》, 1876. 3. 29.

41) 김성남, <19세기말 중국인들의 조선 기행 저술 연구>, (진재교·임경석·이규수 외,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동아시아학술원, 2004) 참고.

42) 관련 자료로는 홍석표, <《점석재화보(點石齋畫報)》의 조선 재현 양상과 중화주의적 욕망>(《中國語文學誌》, 중국어문화회, 2006), 김성남, <특집: 근대 동아시아 삼국의 언론 매체와 조선 표상: 상해(上海)의 『점석재화보(點石齋畫報)』가 그려낸 19세기의 조선>(수선사학회, 2007), <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박원호 외, 고구려 연구 재단, 2005), 《중국 근대의 풍경》(그린비, 2008) 제8장 ‘근대

그런데 《時務報》 내 조선 관련 기사는 기존 중국의 使臣과 관리들에 의해 재생산되던 조선 인식과는 다른 내용들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이는 동시대 매체였던 《申報》나 《點石齋畫報》가 그려낸 조선 이미지와도 다르다.

고려는 장차 鎭南浦와 木浦 두 곳에 새로운 부두를 개설하려고 한다. 鎭南浦는 평양과 인접해 있으며, 평안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물산이 풍부하여 천혜의 땅으로 불리는데, 광물의 우수함은 첫 번째로 꼽힐만하다. 비록 처음 광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학자들의 세심한 연구로 발굴 가치가 더해졌고 실제 매장된 산물의 풍부함은 분명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고려 백성은 평안도가 제일로 여겨진다. 근검 성실함과 자립에의 의지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오기 어렵다. …… 차후 이 지역이 개항되면 반드시 商務가 크게 흥성해질 것이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기존의 개항지를 뛰어 넘을 것이다. 목포는……진정 고려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평안도와 전라도 두 곳은 최고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항지로는 이 두 곳이 적당하다 하겠다. 오늘 이래 고려의 농공업 또한 흥기할 것이며 상무는 더욱 더 혜택을 받을 터이니, 고려 조정의 복이 고려 국민의 복으로 이어질 것이다.⁴³⁾

진남포와 목포의 개항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수차례 미뤄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 개항과 관련된 각국의 입장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목포와 진남포 두 곳”을 “장차 10월 1일 개항할 것”이라는 조선의 발표와 함께 일본을 제외한 “각국의 사신들이 회의를 통해 극심한 저지”를 시도한다. 그 이유로는 “이 항구가 본래 군사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혹은 “연료 매장의 가능성” 때문에, “일본이 조계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등등이 제기되는데, 이는 “질투심에 근거”한 그저 “조선의 일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간주

중국의 타자들’ 등이 있다.

43) “西曆本年十月朔日，高麗將於鎭南浦，木浦二處，開設新埠。鎭南浦係密邇平壤之地，在平安道之西海邊，物產富饒，素稱天府之區，而礦尤首屈一指。雖是處初未開礦，不能知其底蘊，而據識者細加考察，謂苟能盡力搜取，實藏之興，必獲大利。……高麗百姓，向推平安道第一……謂日後此埠既開，必能大興商務，不待數年，吾知其將超出於各舊埠之上矣……木浦……誠高麗至富之區也……平安全羅二道，本為高地之冠，今所聞新埠，適當此二地，目今以往，吾知高國農工，亦將為之興起，商務更受其利益不淺。高廷之福，亦通國高民之福也。” <高麗開埠>，《時務報》第35冊。

된다. “두 나라의 무역의 흥성”과 관계된 개항에 “관계가 깊지 않은” 타국이 반대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⁴⁴⁾ 또한 논의는 개항을 통해 일본이 거둘 수 있는 “국세의 확장”만이 아니라, 조선이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 서술된다. “개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역을 촉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니, 밀거래를 통해 이익만 챙기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개항 후 설치된 “해관”에서 “세금”을 거둠으로써 國庫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무역의 흥기”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조선에 “문명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타국의 이익을 막으려는” 개항에 대한 반대는 “천인이 공노할 일”로 평가된다. 아울러 개항은 “국가 간에 이미 결정된 조약”이므로 “즉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⁴⁵⁾

또한 “어떤 것도 강구하지 않을 것” 같던 조선의 한 관리는 “구미 각 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 “외국의 문명과 흥성한 技藝가 실로 개화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더욱 놀란 것은 “구미 사람들의 근면”함과 “애국심”이었으며, 서구인들의 독서에 기반 한 지식과 각종 학술은 이들이 振興할 수 있었던 원인임을 깨닫는다. 이 문명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욕망은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高宗과 조선 君臣들의 개혁 추진 및 좌절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서는 조선인들의 개혁을 통한 자주에의

44) “木浦, 鎮南浦二埠, 將以十月一日公開埠口, 既錄諸報焉. 蓋朝鮮貿易, 利害所關係, 以中日兩國爲最, 而他國不甚關係也. 現如將開二口, 擬會擴中日兩國貿易之殷盛. 各國使臣會議, 欲阻礙之, 而甚者, 或謂此埠, 本爲軍事要害之地, 不須開埠口也. 或日本浦前面有一島嶼, 此島嶼當假爲當煤所. 又或云, 日本不宜設租界於此, 議論紛紛, 唯欲阻礙朝鮮之事耳. 原其本心, 實出於猜嫉之見. 蓋亦謬甚矣. 然朝鮮政府既發令開設新埠, 是兩埠最關我國貿易情形, 從事於通商者, 豈可不深思哉.” <朝鮮擬開新埠>, 《時務報》第35冊.

45) “朝鮮國將開木浦, 鎮南浦爲埠口, 尙未定期. 蓋有許多事情, 至今未行也. 近時該國議政府, 有斷行之意, 而某公使沮礙此事. ……然該埠一旦開口, 則日本人民, 必彙集於該地, 而盛興商館, 以專占其利無疑, 且彼國人民, 多開商館, 即增多其國之勢力. 故不開該埠口, 猶如今日, 則某國與日本之勢力, 相匹於朝鮮, 猶足以維持今日之勢也. ……雖某國欲沮礙朝鮮之事, 而朝鮮政府, 欲開埠口之意, 則頗切矣. 何則, 中國商賈, 暗中往來於鎮南浦, 爲貿易者頗衆, 在木浦亦然. 故欲防其濫觴, 兼欲開埠口設海關, 以征其稅, 而增多國庫所收入, 是蓋韓廷之志也. 某國何事殉己國之利, 而欲沮礙他國之事. 是天人所共怒也. 總稅務士兼度支顧問, 母拉恩氏, 首提倡宜丞開口之意, 謂開埠口之利, 足使貿易有起色, 兼輸進文明於國中. 且夫開該埠之事. 既與日本有約, 則刻下必不加行之也. 要之, 韓人均以開口爲利, 而某國欲沮止之, 豈可得乎.” <論朝鮮國木浦及鎮南浦>, 《時務報》第34冊.

열망과 의지가 서술되어진다.⁴⁶⁾

물론 조선 관련 기사가 긍정적인 것은 조선의 開港 혹은 變法이 가져다 줄 “이익” 때문이었다. 개항과 변법이 ‘문명’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이는 《時務報》 속에서 선택 번역된 조선 관련 기사가 《時務報》의 편집 자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결국 조선의 국가 상황이나 조선이 개항과 변법을 통해 맞이할 문명의 세계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황제 칭호: 3년 전 일본의 도발 이후 고려는 여러 차례 법을 바꾸었는데, 그 변법이 수시로 이루어져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모두 갑자기 이루어진 것들이라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 중 가장 우스운 것은 교만함에 빠져 존호를 황제로 바꾼 것이다. 이전에 비록 고려의 여러 대신들이 분분히 왕에게 존호 개칭을 주청한다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은 이것이 단지 고려 대신들의 왕에 대한 개인적 아첨쯤으로 여기며, 정말 그렇게 할리가 없다고 무시했었다. …… 군신들의 태도에 억지로 주청을 받아들여 존호를 황제라 하였으나 그 속마음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이달 12일 다시 대관식을 거행하였다 …… 또 듣자하니 고려 정부는 조선을 대한, 혹은 大華로 개칭하여 중국을 난처하게 한다고 한다.⁴⁷⁾

빈번하게 시도되는 조선의 변법은 “하도 보고 들어 익숙해져 버린” 우스운 일에도 불과하다. 自主國家로서의 건립 의지로 볼 수도 있었을 高宗의 황제 칭호와 대한제국으로의 국호 변경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改稱 이후 “나라의 정사는 이전보다 못”하고, “그 나라의 폐단은 일일이

46) 관련 기사로는 <朝鮮擬編纂法典>, <朝鮮志士提倡自主>(第25冊), <高麗人士提倡自主>(第60冊), <記高麗變法事>(第32冊) 등이 있다.

47) “尊帝號 自三年前, 日本啓覺以後, 高麗屢變新法, 遷易無常, 更僕難數. 此事皆猝然而行, 絕無斟酌盡善之處…… 今則司空見慣矣. 其最可笑者, 莫如其顧□然自大, 改尊號曰皇帝. 前雖傳聞高麗君臣, 紛紛奏請高王, 改稱尊號, 外人以爲此特高麗群臣諂佞其君, 以求利己, 未必果有此舉, 故漠然視之. …… 却群臣之態, 勉允所請, 尊號曰皇帝. 然其心竊竊自喜焉. 爰於本月十二日, 復行加冕禮…… 改國號 又聞高麗政府, 議改朝鮮曰大韓, 或曰大華, 以羞中國. 邇來其國中流弊日多, 言之不可勝言. …… 高麗日本報章, 亦力持改號之議以媚之云.” <高麗近事>, 《時務報》 第44冊.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을 뿐이라고 폄하되고 있다.

조선 내 신문을 제외하고는 국호 변경에 대해 유일하게 지지를 보낸 나라는 일본이었다. “서양과 교류한 지 오래되지 않은” 조선이 보이는 “참으로 많은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자주 국가”⁴⁸⁾로 판단하게 한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인들이 조선을 집어삼키고 있음은 천하가 아는 바”⁴⁹⁾로,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에 그 힘이 미치는 것”⁵⁰⁾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부동항의 확보를 남하하는 러시아의 세력은 고려가 맞이할 “자주”의 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러시아의 반박 기사가 소개되기도 한다. “러시아가 조선에서 위세를 떨쳐서 장차 조선이 러시아의 속국이 될 거라는 말이 있는데, 실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러한 인식의 발원지가 “현재 조선에서는 정변을 일으키고 미국에 갔던 서재필”이 “은밀히 참여하고 있는” 신문이라고 파악한다.⁵¹⁾ “일본이나 러시아와 달리 고려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상무로만” 조선과 관계하고 있던 영국은 “영국의 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⁵²⁾ 일본의 조선 침략을 의도를 간파하고 있던 영국은 결국 “러시아를 저지”하고 조선에서의 이권 보호를 위해 일본과의 동맹을 주장하기에 이른다.⁵³⁾ 조선은 이미 자주 국가라는 판단, 조선의 자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견, 자주에 대한 열망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등, 《時務報》 내 조선 관련 기사는 《時務報》의 독자들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서술의 가능성 역시 보여주고 있다.

48) <高麗入會>, 《時務報》 第38冊.

49) “俄人囊括朝鮮, 天下所空見也.” <俄人經營咸鏡道>, 《時務報》 第29冊.

50) <論俄制朝鮮>, 《時務報》 第26冊.

51) “近西字報屢稱我俄威○朝鮮, 將舉該國爲俄屬 …… 我俄實情, 要未必然 …… 然則我俄雖現不欲樹威於朝鮮, 不可得也. 在該國有二美國人, 佐國王修其政務, 中有一人 …… 得有今日之聲望. 此人爲美國黨領袖, 現漢城中英字新報及韓字新報等. 此人皆隱與其事云.” <俄報論日俄關係>, 《時務報》 第41冊.

52) “我英國之與朝鮮, 未必同其利害如中日諸國也. 中俄固接壤於朝鮮, 卽日本與朝鮮亦一衣帶水之間. 唯我英國則但以商務關係於朝鮮耳.” <英國及朝鮮之關係>, 《時務報》 第40冊.

53) <英議院宣言拒俄助高>, 《時務報》 第38冊.

《時務報》 내 조선 관련 기사는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광범위한 번역(廣譯)”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다방면으로 수집(博搜)”된 세계 지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서구와 일본 매체의 번역을 통해 만들어진 개념과 범주의 틀 안에서 서술되고 있었다. 日文, 英文, 佛文의 자료들 속에서 선택되어 번역된 조선 관련 기사는 한 두 줄의 짧은 기사들까지도—오히려 그래서 더욱 반복적으로— 조선이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천하 조공 관계 속 藩屬이 아니라 서구 열강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時務報》의 조선에 관한 기사들은 조선에 대한 기존의 지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조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인식 지도상에 발생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實例였던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조선에 관해 번역된 지식이 조선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경우는 전무하며, 조선에 관한 지식 역시 온전히 그 자체가 대상이 되어 언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반면 열강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러시아 및 일본과 관련된 자료 속에서 조선은 거의 어김없이 朝鮮 혹은 高麗라는 두 글자로 존재를 드러낸다. 일본 혹은 서구를 통한 조선 번역, 소통(通)을 추구하지만 막힘(塞)으로 대변되었던 조선과는 오히려 그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소통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 소통의 통로는 한쪽으로만 향해 있었다. 결국 “단힌 문으로 인해 만들어진” 정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野言”도 아닌 “雜事”에 불과해진다. “광범위한 번역”의 과정에서 “자질구레한” 조선 지식들을 통해 조선은 가볍게 “말해지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사실 무근의 풍설도 이를 퍼뜨리는 자가 많으면 결국 모두 믿게 되고 마는 법”이다. “주위들은 말(塗說)들에 근거했을 뿐 정확한 정보가 아닌 “군사나 적의 상황”에 대해 “부실하게 기재”하고 “잘못 전해진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국정을 그르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이다.⁵⁴⁾ 이런 “와전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가운

54) 《申報》와 《點石齋書報》에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淸佛戰爭과 淸日戰爭에서의 잘못된 승전보 등이 그 예이다.

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당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것조차 매우 다른 이야기가 오가는 모순”⁵⁵⁾은 조선 관련 기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신문에 기록될 경우 넓은 층의 독자로 인해 그 전파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여타 기록을 통해 오랜 기간 전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와전은 처벌까지도 필요”했으며, 동시에 “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해진 것을 고찰하여 판별”할 필요가 있었다.⁵⁶⁾

일본에게 고려는 속국일 뿐이다. 이것은 추측의 말이 아니라 역사상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고려에서의 일본 거동은 단지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만은 아닌 것이다.⁵⁷⁾

매체와 독자는 모두 “實在情形”에 대한 보도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진(云然)”, 轉載된 기사들 중 일부는 그 내용에 대한 “깊은 의미” 사유 없이 “단장취의”된 것인 경우가 상당수였다. 간혹 제시되는 “역사상의 분명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다. 《時務報》 역시 매체가 지닌 이러한 폐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번역”과 “불만한 의론”들의 “잘 다듬어진 글”이 알게 해주는 “요점”은 여전히 신문을 “妖言”으로만 간주되거나 이로 인해 “적대시”할 수 없는 “좋은 방도(良法)”로 여기게 했다.⁵⁸⁾ 상상의 가

55) 헨리 위그렘, 이영옥 옮김, 《영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 살림, 2009. 19-20쪽.

56) <懲訛言說>, 《時務報》 第12冊.

57) 夫日本視高麗, 直藩屬耳. 此(□□)推度之詞, 其史傳班班可考也. 苟一旦而爲他族所距, 則向之以上國自居者, 其將何以爲情, 故日本之舉動於高麗, 非徒欲自報而已也. <俄日高實在情形>, 《時務報》 第45冊.

58) “記載瑣故, 采訪異聞, 非齊東之野言, 卽秘辛之雜事, 閉門而造, 信口以談, 無補時艱, 徒傷風化, 其弊一也. 軍事敵情, 記載不實, 僅憑市虎之口, 罔懲夕雞之嫌, 甚乃揣摩衆情, 臆造詭說, 海外已成劫燼, 紙上猶登捷書, 熒惑聽聞, 貽誤大局, 其弊二也; 臧否人物, 論列近事, 毀譽憑其恩怨, 筆舌甚於刀兵, 或颺頌權貴, 爲曳裾之階梯, 或指斥富豪, 作苞苴之左卷, 行同無賴, 義乖祥言, 其弊三也; 操觚發論, 匪有本原, 蹈襲陳言, 剽撮塗說, 或乃才盡爲憂, 敷衍塞責, 討論軼聞, 紀述遊覽, 義無足取, 言之無文, 其弊四也; 或有譯錄稍廣, 言論足觀, 刪汰穢蕪, 頗知體要, 而借闡宗風, 不出鄭志, 雖有斷章取義之益, 未免歌詩不類之憾, 其弊五也. 具此諸端, 斯義遂枯, 遂使海內一二自好之士, 反視報館爲蜚賊, 日報章爲妖言, 古義不行, 良法致弊. 嗚呼, 不

능성들을 새롭게 창조된 과거의 기록들과 결합시킨 서사적 기획 중 하나로서, 英文報와 東文報를 통해 번역된 조선에 대한 지식은 새로운 조선을 재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번역이 생명을 잃은 두 언어 간의 단조로운 등식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생명의 개념은 단순히 역사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 자체의 고유한 역사를 지닌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될 때만이 그 정당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⁵⁹⁾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번역되고 있는 조선 관련 기사는 조선만이 아닌 《時務報》의 욕망과 함께 번역된 것인지도 모른다.

www.kci.go.kr

其恫歟!” <論報館有益於國事>, 《時務報》 第1冊.

59) 발터 벤야민, 李泰東譯, <번역가의 작업>, 《문예비평과 이론》, 문예출판사, 1994, 87-89쪽.

< 부록 > 《時務報》 내 조선 관련 기사의 내용별 분류

분류(類目)			관 련 기 사
대분류	소분류	時務報	
정치	정치	議院之言論	<朝鮮近事>, <朝鮮國王還宮>, <高麗國亂情形>, <高皇薨逝>, <高麗大院君薨(附其逸事)>, <高麗新設民會>, <高麗近事>
	외교	鄰國之舉動	<朝鮮准俄人採伐樹木>, <日本擬朝鮮法>, <論俄制朝鮮>, <俄人經營咸鏡道>, <朝鮮遣使>, <朝鮮入會>, <美國駐朝鮮公使示諭>, <論俄日在高麗情形>, <東方情形>, <論俄日關係>, <朝鮮擬開新埠>, <日人論俄日高情形>, <英國議院宣言拒俄助高>, <美築高路>, <俄租高地>, <英國及朝鮮之關係>, <俄日高實在情形>, <日俄在高麗情形>, <俄韓交涉近聞>, <日俄在高麗情形>, <俄高近事>, <俄借高麗口岸>, <論俄在東方情形>, <論東方時局英俄頤和平分利>, <論各國於東方用意所在>, <論英日俄聯盟保護中高>, <俄英日與高麗交涉情形>, <俄人論東方情形>, <俄國陰謀>, <俄據高島>, <日本煽韓>, <高俄交涉>, <俄韓交涉>, <俄國召還駐韓公司>, <附編·朝鮮辭俄國陸軍教習及度支部顧問官本末>, <日本論俄人在高麗近日情形>, <中國日本高麗三國時局>
	법률	律法之改變	<朝鮮擬編纂法典>, <記高麗變法事>, <朝鮮志士提倡自主>, <朝鮮大臣游歐美有感>, <高麗人士提倡自主>
경제	재정	國用之會計	<朝鮮貨幣考>, <朝鮮擬償日本債>, <西儒非立潑及哀生論高麗稅務>, <朝鮮國國家借銀塊於日本>, <高麗電局進款>
	상업	民業之盈絀	<中日在韓貿易情形表>, <論朝鮮國木浦及鎮南浦>, <高麗開埠>, <朝鮮擬開新埠>, <高麗商務總論>
	산업	物產之品目	<朝鮮金鑛>, <高麗礦務>
사회	지리	地理之險要	<朝鮮國鎮南浦>, <論朝鮮國木浦及鎮南浦>
	군사	兵力之增減	<朝鮮擬用俄兵>, <俄士官教鍊韓人>, <俄員抵高>
	인구	人數之生死	
학술	학문	學會之程課	
	기술	器藝之新制	
	과학	格致之新理	<高麗電車>

〈參考文獻〉

《申報》

《時務報》

《清議報》

張之洞(1898), 《勸學篇》(<http://www.douban.com/group/topic/3636335/>).

발터 벤야민(1994), 李泰東譯, <번역가의 작업>, 《문예비평과 이론》, 문예출판사.

진재교·임경석·이규수 외(2004),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동아시아학술원.

유영렬·윤정란(2004), 《19세기 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 The Korean repository
를 중심으로》, 景仁文化社.

박원호(2005),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 연구 재단.

엘프리드 W. 크로스비, 김병화 옮김(2005), 《수량화 혁명》, 심산.

차배근(2008), 《중국근대언론발달사 1815-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Elizabeth L. Eisenstein, 전영표 옮김(2008), 《근대 유럽의 인쇄 미디어의 혁명》, 커
뮤니케이션북스.헨리 위그햄, 이영옥 옮김(2009), 《영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
살림.

이진경(2010), 《역사의 공간—소수성, 타자성, 외부성의 시간적 사유》, 휴머니스트.

이동후(1999), <기술중심적 미디어론에 대한 연구: 맥루한, 옹, 포스트만을 중심으로
로>, 《언론과 사회》 제24호.車泰根(2003), <‘중국’의 시각: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일본의 조선’—1870년부터
1919년까지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第16輯.文丁珍(2011), <중국 근대 상하이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19세기 말 《申報》, 《點石
齋畫報》, 《時務報》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第56期.

劉蘭肖(2007), 《晚清報刊與近代史學》,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閻小派(2010), 《中國早期現代化中的傳播媒介》, 上海三聯書店.

潘光哲(2005), <《時務報》和它的讀者>, 《歷史研究》 第5期.

20세기 초 중국의 근대어와 근대지식 연표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화—1896~1915년간
발행된 《時務報》, 《清議報》, 《新民叢報》, 《浙江潮》, 《民報》, 《東方雜
誌》, 《庸言》, 《甲寅》 등 8종 잡지를 대상으로—中國文獻媒體資料中心(<http://cmmc.sinology.org>)

< ABSTRACT >

The early 20th century began to spread rapidly along with typography, Shanghai has been the center of modern media. In addition, Shanghai was the hub of the reform movement of 1898 emerged as a major political issue. Laying o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edia is Shiwubao.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lation source of Korea-related articles, and analyzes these reconstructed knowledges about Korea.

Shiwubao, as media, emphasizes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Thus Shiwubao raises the importance of “a wide range of translation”, Korea-related articles are contained in the world’s knowledge “collected in many ways.” However,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communication with media of empires, such as English newspapers and Japanese newspapers. So, this study could not find translated knowledges about Korea in Korean newspapers based on Korea’s language, and having only the full knowledge of Korea in the articles was an extremely rare case. In contrast, in most articles related to Korea, Korea took place in between great powers, especially Russian or Japanese.

Since the mid-19th century, Korea was imaged as a country that was ‘closed’ and did not want to trade with foreigners. So, Korea was reconfigured as a hopeless organization. Shiwubao sought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but the pathway to Korea was blocked. The information about Korea that was shown by English newspapers and Japanese newspapers reconstituted the image of Korea. Translated articles about Korea in Shiwubao was not only introducing Korea, it might had the desire to be “a strong nation” in the relationships of the world.

Keywords: Shiwubao, Korea, translation, communic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 13.	2012. 2. 13.	2012. 2. 21.	2012. 2. 25.	2012. 2. 29.